

# 이거 하나면 아이들 웰빙 간식 똑딱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

### 첨가물 걱정 없는 다양한 주방 가전기기 인기 '스파클링 워터' '식품 건조기' '핫바제조기' 등



리립 식품 건조기 'LD-528CT'



애니콜 '에그마스터'

긴긴 겨울밤, 방학을 맞은 자녀를 위해 하루 세 끼는 물론 간식까지 챙기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한 요즘이다. 특히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식재료에 풍부한 영양소까지 더한 '엄마표' 간식을 챙기는 주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첨가물 걱정 없이 자연식으로 영양 만점 간식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주방 가전 기기들이 최근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첨가물 걱정 없는 스파클링 워터를 만든다=먼저 아이들이 주로 찾는 탄산을 대신할 음료 제조기. 비만, 치아 손상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탄산음료를 대신해 상쾌함과 동시에 첨가물이 없어 안전한 스파클링 워터가 아이를 위한 건강 음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삼성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는 소다스트림 탄산가스 실린더를 냉장고 내부에 장착해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정수된 물을 간편하게 스파클링 워터로 바꿔줘 집에서도 언제든 지 웰빙 스파클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로 만든 스파클링 워터에 으갠 과일이나 껌을 넣으면 탄산음료에 중독된 아이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새콤달콤한 과일 에이드가 완성되며, 과일 외에도 시럽이나 식초 등 다양한 재료를 섞어 색소와 첨가물 걱정 없는 건강한 홈메이드 음료를 만들 수 있다.

◇좋은 재료를 깔끔하게, 깨끗한 주전부리 만들자=식품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

리와 육포 등 주전부리를 안전한 재료로 첨가물 걱정 없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식품 건조기도 주목 받고 있다.

식품 건조기에 과일을 갈아 넣으면 설탕이나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달콤한 젤리를 만들 수 있으며, 간장과 꿀, 다진 마늘 등으로 양념 된 소고기를 말리면 짜지 않고 담백한 수제 육포가 완성된다.

리립 식품 건조기 'LD-528CT'는 총 4단의 투명건조대로 재료의 건조 과정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1초에 60회 온도를 체크해 온도가 떨어질 때만 히터를 가동하기 때문에 전기료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영양민점 핫바와 꼬치를 계란으로 만들자=핫바나 꼬치 등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대표 간식. 아이가 집에서 이러한 간식을 찾는다면 이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애니콜 '에그마스터'는 계란과 다양한 재료를 기름 튀김 걱정 없이 핫바 모양으로 익혀주며, 취향에 따라 계란의 익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조리시간은 5분 정도로 계란에 채소나 고기류, 크래커 등 다양한 재료를 첨가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고, 영양 간식이나 간단한 한 끼 해결이 가능하다.

에그마스터는 텀블러 모양으로 주방 공간 차지가 적으며, 전기 포트 스타일로 조리기와 포트가 분리되어 조리 후 세척이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보해 설 선물세트 12종 출시

###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보해(회장 임효섭)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정성을 가득 담은 '보해 설 선물세트 12종'을 출시했다.

보해는 복분자주인 '보해 복분자주'와 전용잔을 함께 구성한 '보해 복분자 드림' 세트를 마련했다. '보해 복분자주'는 국내산 복분자만을 엄선, 정성껏 빚은 고품질 전통 와인으로 고유의 맛과 향, 붉은 빛깔이 특징이다.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전세계 VIP가 참석한 '실크로드 메이저스 여수포럼 2013'과 '2013 UFI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국제전시협회) 서울 총회' 공식 만찬주로 선정 국내 전통주의 품격을 드높인 바 있다. '보해 복분자주' 선물세트 가격은 2만3000원으로 알코올 도수는 15도다.

또 청정지역 땅콩마를 해남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최상의 국산 청매실로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 선물세트 5종을 마련,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매취순 10년'의 인기에 힘입어 탄생한 명주 '매취순 12년'을 비롯, '매취순 10년', '순금매취순' 등이 있다.

'매취순 12년'은 오랜 숙성으로 더욱 깊은 맛과 자연 그대로의 풍부한 매실향이 일품인 명주로, 전통주 선물세트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이다. 잔에 따랐을 때 영롱한 황금빛 색감과 코 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매실 향이 어우러져 가족 또는 지인과의 명절



술 자리에 제격이다. '매취순 12년' 선물세트는 3L의 1 병과 제품을 세울 수 있는 황금빛 거치대가 한 세트로 가격은 4만2000원, 알코올 도수는 18도다.

보해의 명절 스테디셀러 선물 세트인 '매취순 10년'은 세트 구성과 알코올 도수가 12년과 동일하며 가격은 3만8000원이다.

이 밖에도 순도 99% 이상의 순금 가루와 10년 숙성의 프리미엄 매실주 원액을 블렌딩한 프리미엄 매실주 '순금 매취순' 선물세트는 한정판으로 출시, 700ml 1병에 1만2000원에 제공하며 알코올 도수는 14도다.

출시 이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여성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플럼와인 '매이(MAY)'도 선물세트로 만날 수 있다. 매이는 프리미엄 국산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한 플럼와인으로, 선물세트는 300ml 4병이 1세트로 가격은 8000원이다. /김대성기자bigkim@

## 설 선물세트 가격 평균 5.7% 올라

### 농수산식품공사 7종 조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5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 7종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사과 선물세트(5kg 기준)는 선물용 큰 과일 물량이 부족해 지난해보다 5.7% 오른 5만2천원에 거래됐고 수확량이 감소한 꽃감 선물세트(1.5kg)는 5.7% 오른 7만4천원에 팔렸다.

한우갈비 선물세트(3kg)와 굴비 선물세트(10마리) 가격도 각각 6.7%(17만5000원)와 16.7%(11만2000원) 올랐고 표고버섯 선물세트(420g)는 4.3% 오른 7만2000원에 거래됐다.

반면, 지난해보다 공급물량이 증가한 배 선물세트(7.5kg 기준) 가격은 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5% 내렸고 산 선물세트(500g)도 작년보다 1.6% 내린 6만원에 팔렸다.

아울러 설 차례 음식 마련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0만6000원, 대형유통업체 기준 29만8000원으로 조사돼 지난해보다 0.1% 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스

## 식품 안전사고, 어패류·육류 '최다'

### 관리대상서도 제외... 3명 중 1명 병원치료 안전대책 시급

매년 식품 안전사고가 1만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식품 안전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어패류나 육류는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사건은 총 2만99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7878건 ▲2012년 1만502건 ▲2013년 1만201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올해 접수된 1만2013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어패류·어패류 가공식품이 31.1%(3736건)로 가장 많았고, 조리·가공식품 17.7%(2127건), 빵·과자류 12.2%(1467건), 육류·육류가공식품 10.2%(1225건), 건강식품 6.0%(717건), 유란류·유란류가공식품 5.6%(672건) 순이었다.

특히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어패류·유란류·육류 가공식품의 비율이 46.9%(5633건)를 차지했다. 어패류, 육류는 생산·가공·유통·판매 중 어느 한 단계에서 관리가 부실해도 심각한 식품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품목의 대부분은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계속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물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올해부터는 과자·캔디류, 빵·떡류 등도 추가된다.

실제 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전체(1만2013건)의 69.3%(8322건)였다. 부작용 유형은 '위·장관



질환'이 42.7%(3554건)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 이상' 30.2%(2515건), '피부 질환' 13.4%(1118건), '구강 이상' 11.7%(977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이런 부작용 중 38.5%(3202건)는 병원치료를 받을 만큼 심각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8.2%(1864건)는 1주일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HACCP를 의무화하고, 조기에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급매물" 삽니다

1. 경매 예정 / 진행중인 물건
2. 공시지가 50% 선 부동산
3. 기타 급매 부동산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